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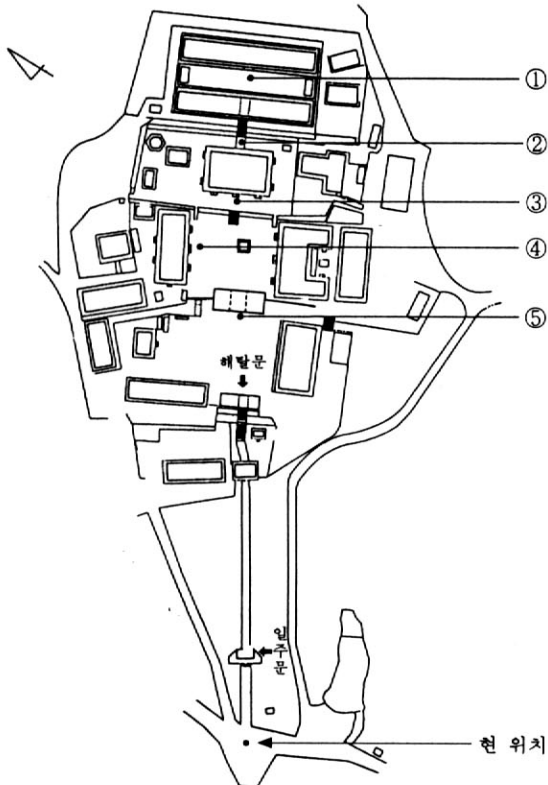
홀수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응시 계열, 문형,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8점과 2.2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물음) 남학생이 지적하고 있는 언어 표현상의 잘못과 가장 유사한 것은? [1.8점]
 - ① 아버지, 식사 드세요.
 - ② 지금 나는 즐거운 것 같다.
 - ③ 네 말은 너무 썰렁하게 들린다.
 - ④ 여기서는 소음을 삼가해 주십시오.
 - ⑤ 그 문제는 난해해서 잘 풀려지지 않는다.
- (물음) 한 시간 뒤에 다시 모여야 할 장소는?



- (물음)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대등한 경기가 될 것이라 함으로써 관전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이 품을 만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 하고 있다.
 - ③ 아나운서는 질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해설자에게 해설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④ 해설자는 대답하기 곤란한 아나운서의 질문을 비유나 속담이 동원된 유머로 받아넘기고 있다.
 - ⑤ 해설자는 우리 팀에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 (물음) 강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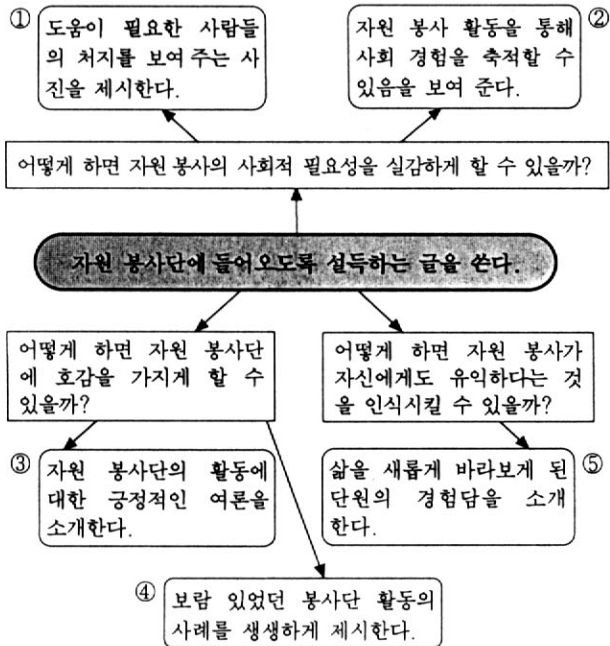
- ①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
- ② 빙산이 물에 뜨는 이유
- ③ 사막 지역의 일교차가 큰 이유
- ④ 겨울에 꽂꽂 언 수도관이 터지는 이유
- ⑤ 추운 겨울에도 수중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

-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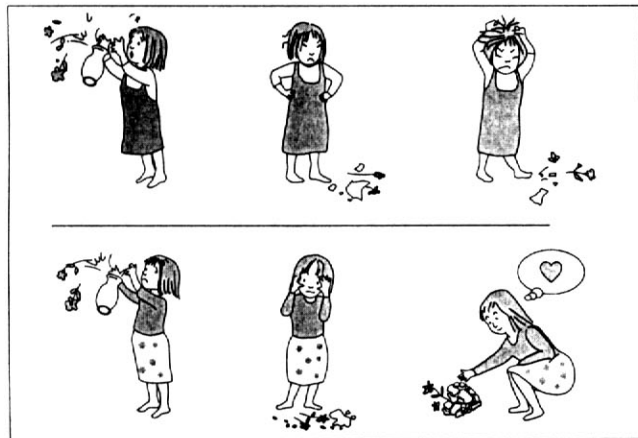
- (물음) 청취자들이 기자에게 느낄 수 있는 아쉬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영화의 기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면 좋았을걸.
 - ② 일반인을 위해 전문 용어는 쉬운 말로 풀이해 주었으면 좋았을걸.
 - ③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고민한 바를 질문했으면 좋았을걸.
 - ④ 미리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 분석을 한 다음, 대담에 임했으면 좋았을걸.
 - ⑤ 영화에 대한 주변적인 정보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았을걸.
- (물음)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화에 대한 광고 문안을 만들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정한 한국인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 ② 최고의 감독과 배우, 화려한 영상과 음악의 행복한 만남!
 - ③ 소리의 감동을 그림으로 전한다! 영상 미학의 새로운 경지!
 - ④ 오랜만에 만나는, 흥행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감동의 명화!
 - ⑤ 전통을 되살린 명장(名匠)의 솜씨! 이제 당신의 눈과 귀가 함께 열립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다음은 글쓰기에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8. 아래 그림을 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를 전개하였다. 사고 내용이 주제, 그림, 사고 방식에 모두 어울리는 것은?



- ① 대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실수를 새로운 가치 발견으로 이끌어 간다.
 ② 분석: 사람은 덜렁대서 실수투성이인 사람과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③ 논증: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기 발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④ 예시: 아끼던 꽃병을 깨뜨리고 몹시 속상해 하는 사람을 보았다. 하찮은 사물에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10]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서론: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서론: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본론
1.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소극적 관점 - 외적(外敵)으로부터 지켜야 할 평화 나. 적극적 관점 - 함께 이룩해 가야 할 평화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나. 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해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평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결론: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9. 개요를 (가)에서 (나)로 고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③ 중심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④ 내용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⑤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10.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①
본론 ▶ 국제적 분쟁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②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③
▶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④
결론 ▶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⑤

11. '가·죽·애'를 운(韻)으로 삼아 삼행시를 지으려 한다.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여 완성한 것은?

<보 기>

1행: 가슴속 슬픔 채워 제게 기쁨 주신 당신

2행: 죽

3행: 애

<조건>

-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을 것.
- 내용의 통일성을 갖출 것.
- 전체적인 어조를 일치시킬 것.

- ① 족보에 이름 올려 세상 살게 하였도다.
애모(愛慕)의 정 깊을수록 그리움만 쌓이네.
- ② 죽두리 사모관대 흥조 띤 두 얼굴
애고 띤 그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어라.
- ③ 죽히나 한평생을 회생으로 보내셨네.
애답다. 이 내 마음 보답할 길 아득하네.
- ④ 죽집게로 흰머리 뽑아 가는 세월 잡으시려네.
애처로운 내 한평생 부모 공양 한맘일세.
- ⑤ 죽새 같은 운명 지고 실날 같은 희망으로
애달픈 한평생을 덧없이도 살아왔네.

12. 다음은 문예반에서 내는 문집에 실기 위해 쓴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이란, 곱고 예쁜 것에서 느끼는 쾌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예쁜 소녀의 그림보다 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늙은 어부가 낚은 그물을 깊고 있는 그림이 더 감동적일 수 있다. ㉡ 또한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당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체미의 절정을 보여 준다 는 점에서 매우 감동적이다. 선과 악을 간단히 구별할 수 없는 여러 인물들이 뒤얹혀서 격심한 갈등을 보여 주는 영화가 더 감명을 주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 이런 사실들은 예술의 미(美)가 대상 자체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삶과 세계에 대한 ㉣ 인식 및 체험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미는 ㉤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자연·사회에 대한 통찰과 그 표현의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① ㉠: '예쁜 소녀가 그린 그림'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예쁜 소녀를 그린 그림'으로 바꾼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 문예반원들이 읽을 글이니까, 이 부분에 문학 작품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 문장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식 및 체험에서 우러나온다'로 고친다.
- ⑤ ㉤: 그 뜻이 불명료하고 문법에도 어긋나므로,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로 고친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러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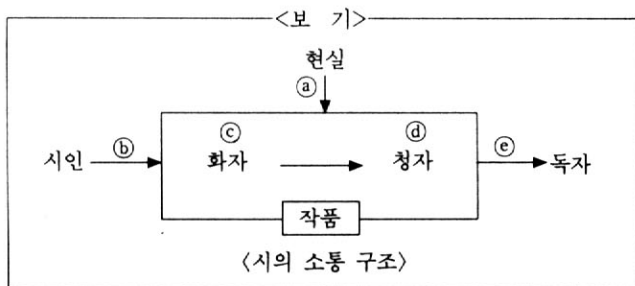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백무선: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회의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 ⑤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14. 부제(副題)를 붙여 얻게 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가)를 <보기>의 각 요소에 관련지어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a: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 준다.
- ② b: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여, 시 내용이 시인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 ③ c: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d: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준다.
- ⑤ e: 그동안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15.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① '어머니의 힘든 노동'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② 방 안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시상(詩想)을 집약하는 것도 좋겠군.
- ③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화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 ④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려 한 원시(原詩)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 써야겠어.
- ⑤ 어머니의 일을 채소 장사로 바꾸고, 그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16.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다)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나), (다) 모두 어둡고 추위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나)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옹기'에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④ (나)에 반복된 '울 엄마'는 화자가 유년기 체험을 반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다)는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17. (가)의 ㉠~㉤ 중, (다)의 작은 마을과 그 이미지가 대응되는 시어는?

- ① ㉠: 눈
- ② ㉡: 메밀묵
- ③ ㉢: 기계 굴러가는 소리
- ④ ㉣: 새빨간 감
- ⑤ ㉤: 울음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 치솔질 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치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 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 받는다.
-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9. 밑줄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20. 밑줄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TV 방송 : 카메라 ② 시계 : 톱니바퀴
- ③ 연주회 : 지휘자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 ⑤ 정당 : 정권 획득

21.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의 표기 원칙을 설명한 항목은?

<보 기>

제 30 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뺨간(退間), 횡수(回數)

- ① 제 30 항 1 - (1) ② 제 30 항 1 - (2)
- ③ 제 30 항 2 - (1) ④ 제 30 항 2 - (2)
- ⑤ 제 30 항 3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말'이란 ㉠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팔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덮밥, 책꽂이, 전널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덧셈, 뺄셈,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등의 용어들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닥이, 신문팔이, 아빠, 끈끈이, 맛춤, 병따개, 비웃'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나)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흔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돔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돔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 조어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라도 ㉤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남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던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며 '깨끗'과

같은 어근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 주는 예들이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8점]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24.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의 개구리를 가리키는 '황소개구리'
- ② ㉡: 일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여자 점원을 부를 때 쓰는 '언니'
- ③ ㉢: 부사 '몰래'와 명사 '카메라'를 결합하여 만든 '몰래카메라'
- ④ ㉣: 동사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만든 '먹거리'
- ⑤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꼴'

25. 문맥상 ㉢가 뜻하는 것은?

- ① 신개념 생성
- ② 실제적 필요
- ③ 참신한 표현
- ④ 학교 교육
- ⑤ 민족 정서

26. 윗글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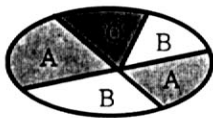
<보 기>

요즘은 휴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가워(요)', '컴퓨터'를 '방가', '컴'으로 바꿔 쓰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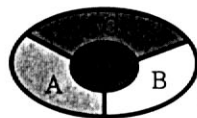
- ①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 ② 기존 표현을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에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 ③ 글자 입력 속도를 고려하여 단어의 길이를 줄인 말이다.
- ④ 어법에 어긋나게 단어의 일부만 써서 만든 말이다.
- ⑤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만 호응을 얻는 말이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6년에 ㉠ 미국의 수학자 아펠(K. Appel)과 하켄(W. Haken)은 지도(地圖)의 채색과 관련된 '사색(四色)문제'를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색문제는 한 세기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국가, 도, 시, 군 등)을 ㉡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그림 1>은 세 가지 색만 있으면 각 지역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는 네 가지 색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림 2>보다 더 복잡한 지도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색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이 '어떠한 경우라도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사색문제의 요구이다.



<그림 1>



<그림 2>

그런데 아펠과 하켄의 증명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점은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이었다. 그 증명 과정에는 고려해야 할 경우가 대단히 많고 필요한 계산의 양도 엄청났다. 그들은 4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약 만 가지의 기본적인 경우를 분석했으나, 인간인 수학자가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증명 과정은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컴퓨터도 이를 해결하는 데 무려 1,200시간이나 걸렸다. 그에 따라 증명의 결정적인 부분은 인간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수학적 증명의 개념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언젠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이 드디어 터진 것이다.

당시까지 증명은 수학자가 어떤 주장의 진실성을 다른 수학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견실한 추론의 일부였다. 수학자들은 그 증명을 읽음으로써 명제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그것이 진실인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색문제의 증명은 거의 컴퓨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 그 증명을 받아들이려면 증명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작자의 의도대로 실행되었다고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수학자가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어떤 수학자는 ㉢ "컴퓨터에서 얻은 결과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이런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학적 증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색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증명이 처음 발표되고 10여 년이 지난 뒤까지도 증명에 사용된 프로그램에서 그 증명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주기적으로 나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컴퓨터가 더욱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색문제의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의 수는 점차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수학자는 컴퓨터의 출현이 수학 연구의 방법뿐 아니라 '무엇을 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마저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27.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은?

- ① 수학적 증명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② 사색문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수학자가 있다.
- ③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이 나왔다.
- ④ 현재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사색문제를 증명한 사람은 없다.
- 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수학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8. ㉠에 관해 신문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윗글의 논지를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컴퓨터, 수학계의 난제 해결
- 백 년을 끌어 온 '4색문제' 증명
- ② 신비의 베일 벗은 '4색문제'
- 수학적, 컴퓨터의 능력 인정
- ③ 컴퓨터, '4색문제' 증명
- 수학의 실용성 입증
- ④ 컴퓨터의 개가
- 수학자와의 대결에서 승리
- ⑤ '4색문제' 증명에 성공
- 수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

29. ㉡의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된다.
- ②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 ③ 토론 과정에서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 ④ 비전문가에게는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다.
- ⑤ /Ⅱ/와 /Ⅲ/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0. ㉢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어떻게 주식 시장의 변수들을 다 점검해? 주식 매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 ② 기계로 만든 가구가 값싸고 실용적이겠지만, 가구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튼튼하고 보기도 좋겠지.
- ③ 자동 항법 장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사람이 직접 보며 조종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 ④ 컴퓨터로 원주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 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은 정교하지만, 단순한 행동을 반복할 뿐이지.

31. 윗글의 주된 내용을 발전시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 연구자가 지지하는 견해를 용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②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명들을 재검점할 필요가 있다.
- ③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사색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④ 수학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수학적 증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검토도 수학적 논의로 인정해야 한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산에 눈이 ㉠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 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서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가 곧장 진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 관상소에서 어느 장난꾼이 농담 삼아 그에게 서전과 춘추를 외게 하여 급제를 주고 진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조롱으로 '황 진사', '황 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 진사' 자신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이쯤 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다. 아궁에 불을 넣고 방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나는 온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낮이 ㉡ 짐짓했을 때다. 밖에서

"일 오너라."

하는 소리가 마치 ㉢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같이 바람결에 싸여 들어왔다. 내가 보니 황 진사가 연방 손으로 콧물을 닦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 대체 일어 죽지나 않았나 하고 궁금해하던 차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진정 반가웠다.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호호……."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렇 거루 난 여태 한 번두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호호……."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저 해치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 구운 것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뽑아서,

"관관거(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로다."

하는 대문을 외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채하고 있으니,

"아, 성인계서도 실수가 있던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운을 두셨거던!"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옆눈으로 흘려보며 마구 기를 뽑아 이렇게 외쳤다.

그래도 내가 모른 채하고 있으려니까 그는 화로 곁에서 일어 서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젖히고 저고리 섶을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웃의

이를 잡아내어 숯불에 넣으려는 겐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 번 나 있는 쪽을 흘려보고 나서 배를 두르고 있던 때묻은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지러지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 목은 모뿔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싸서 노끈으로 친친 감아 맨 솔잎 한 줌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물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랴."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 이지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패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에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 주역책은 왜 하필 전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다는데 그랴."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복해 지략의 조종이오? 조화의 근본 아니오?"

하였다.

나는 처음 관상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육효를 뽐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 얼마나 이 '지략'과 '조화'를 부러 보고 싶어하는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 (가) 제나 몸에 지닌 솔잎 한 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러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흙가루 약과, 친구의 책상을 들리고 다니는 것쯤인가 하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다.

저녁때가 되어 그는 전대를 다시 배에 두르고 돌아갔다. 종 종 오라고 한즉, ㉧ 매양 신세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절을 몇 번이나 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내가 성이 가시도록 자주 나를, 아니 내 삼촌을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오랫동안 삼촌께 못 뵈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한시를 지어 달라면서 사오 차나 운자를 가지고 왔다. 어디 쓰느냐고 물으면 친구의 환갑 잔치에 ㉨ 대노라고 한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 이 참봉, 윤 승지, 무슨 참판, 어디 남작 하고 모조리 서울서도 유수한 대가와 부자들의 이름만 꼽지만, 거리에서 그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나 가끔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의 말과는 판판으로 황 진사 자신보다 별로 유려한 속들도 아니었다.

좋은 규수가 있으니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고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졸랐다. '좋은 규수'가 어딴냐고 물으면, 단번에 친구의 딸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냐고 하면 무슨 승지, 무슨 자작 하는 예의 대갓집 따위를 꼽았다. 색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매양 자기의 누르통통하게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유복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내가 웃으며, 색시가 일재 선생 같아서야 좀 재미 적다고 하면,

"아, 일등 규수라는데 그랴."

하고 화를 내었다.

"그렇지만 너무 육중해서야."

하면,

"아, 거기 식욕이 들었는 걸 그랴. 아, 여복해 일등 규수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그랴."

하고 기를 쓰곤 하였다.

- 김동리, 화랑의 후예 -

32.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윗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의 일그러진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그려 냈다고 생각합니다.
- ④ 유교 경전의 해석과 수용을 통해서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⑤ 사투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3. 대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가 (가)와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 ①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바쁘다. 자랑스러워 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 그만큼 여기는 생활한다는 것에 서투를 수 있다고나 할까? 바쁘다는 것도 서투르게 바빴다. 그리고 그때 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서투르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든지 설령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 김승옥, 무진기행 -

- ②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것처럼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남의 눈을 끌어 크로마를 성나게 하거나 않을까 하고 오금을 못 펴고 있었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로마에게 붙어 있었다. 나는 이 세 아이들과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다.

- 헤세,데미안 -

- ③ 그는 지난 넉 달 동안이나 어떤 보람을 느껴 가면서 운영해 오던 야학을 어제 당에서 나온 공작대원에게 접수를 당한 것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훈이 야학 시간이 되어 가 보니 벌써 낮모를 청년이 교단을 점령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술이 좀 지나친 것도 그 허전감에서 온 것인지도 몰랐다.

- 황순원, 카인의 후예 -

- ④ 그는 문득 깨달았다. 최근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혐오, 특히 오늘 코르차진 공작이나 소피아 바실리에프나, 미시나, 코르네이에 대해서 느낀 혐오감은,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었었던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의 비열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감정 속에는 뭔가 병적이며서도 동시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있었다.

- 톨스토이, 부활 -

- ⑤ 전우란 소년은 내가 직접 담임 했던 제자다. 당시 나는 K라는 소위 일류 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첫 시간의 일이었다. 지각생이 많았다. 지각생이 많으면 교사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유독 닮아는 놈은 오래 그런 일이 잦은 놈들이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34. '황 진사'와 <보기>의 '초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초시는 돈의 필요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니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 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뿜 지른다. 돌아다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곶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널 모레……. 쟈-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만 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써야 문화 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① 황 진사: 너나 나나 살 만큼 살았는데, 너무 돈 돈 하지 말라구. 사람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 ② 초시: 날씨는 춥지, 담배는 피워야지.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 다들 제 코가 석 잔데. 더 늙기 전에 담배값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 ③ 황 진사: 초시면 초시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두르면 어쩌나? 유유자적 복덕방에서 장기나 두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자님 말씀이라도 들려주면 좀 좋아?
- ④ 초시: 문화 주택이 즐비한 시대에 공맹을 읊은들 뭘 하나? 난 차라리 금광이나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볼 걸세.
- ⑤ 황 진사: 육효가 잘만 뽐히면야 나도 족보를 팔아서라도 뭇가를 해 볼 걸세. 지략과 조화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35. 윗글을 회곡으로 바꾼다면, ㉠~㉥ 중 독백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윗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보 기>

먼산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 있어 머지않아 폭풍우가 ㉠치고 비가 쏟아질 듯한 기세였다. 남자가 여자를 본 것은 다섯 시가 ㉡짐짓했을 무렵이었다. 수백 년 ㉢묵은 농성이 힘겹게 서 있는 방풍림 근처에서 그녀는 홀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형제가 ㉣이처럼 방파제는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거센 파도를 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방파제 안쪽에 배를 ㉤대노라고 했건만 여의찮아 씨름을 하던 중에 언뜻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물근 ㄹ ㄹ ㄹ 고비 ㄹ ㄹ ㄹ 아나 흐르느니,

진 녀름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호도다.

㉠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뚝 저비오,

서르 親(친)호며 서르 갓잡느니 몹 가온뎃 곱머기로다.

㉡ 늘근 겨지븐 조희를 그려 장귀파놀 땡굴어놀,

저른 아드론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땡느다.

한 病(병)에 엇고져 호는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 겨구맛 모미 이 밧긔 다시 므스글 求(구)호리오.

- 두보, 강촌(江村) -

(나)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 역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붉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워 한 잔 먹자 할꼬.

㉢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다)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속.

***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37.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나라의 노래는 음란스러워 말할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방탕한 뜻이 있고 거만한 데다가 외설스러워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李鵬)이 지은 노래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이것이 더 낫다고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우습게 알며 공손한 뜻이 없는 데다가 온유(溫柔)한 태도가 적어 애석하다. 요사이 나는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고치는 틈틈이 마음에 감동된 것을 한시(漢詩)로 나타내곤 했다. 그런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가 되지는 않았다. 마음에 감동된 것을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 이황, 도산육곡 발(陶山六曲跋) -

① (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담고 있어 좋군.

② (나)는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좋군.

③ (다)는 음란하거나 외설스러운 태도가 없어 좋군.

④ (가)와 (다)는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느낀 감동을 표현해서 좋군.

⑤ (나)와 (다)는 시속의 말로 지어져 노래할 수 있어 좋군.

38. <보기>를 참조할 때 ㉠의 생활 모습과 내면 세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보 기>—

두보는 처자를 데리고 난리를 피해 굶주림 속에 곡강(曲江)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의 심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강촌(江村)'이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는 거기서 너무도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뜻과 시는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고 백성을 아꼈다.

①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에 거문고를 곁에 놓고

사계절 흥취를 많은 꽃에 부쳤으니

이 몸도 태평시절 성은(聖恩)에 젖었는가 하노라. - 송타

②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하여라.

- 김상헌

③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엿것인들 그 워 땅에 났더니.

- 성삼문

④ 이 몸이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

서호(西湖) 옛집을 다시 쓸고 누웠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할지나 님 못 뵈어 하노라.

- 이충

⑤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붉은 노을 가득하니 이 진정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찌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 김득연

39.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숭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 ① 그렇게 바꾸면 무덤 주변의 스산한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 ②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닭은 소재로 표현해야 해.
- ③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을 통해 죽음의 쓸쓸함을 신비롭게 표현한 것을 놓치게 돼.
- ④ 원숭이가 어떤 정서를 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 ⑤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어도 여러 글을 통해 원숭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해.

40. (다)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가집은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겠어.
- ② 뾰족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
- ③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 ④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세속과 단절된 분위기를 그려야겠어.
- ⑤ 복사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야겠어.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제비와 갈매기를 통해 그윽한 자연경관을 그렸다.
- ② ㉡: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강촌 생활의 모습을 나타냈다.
- ③ ㉢: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해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 ④ ㉣: 의미가 상반되는 구절을 배열해 무덤의 배경을 묘사했다.
- ⑤ ㉤: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겹하여 몸집도 작으니 ㉠ 온 산중이 떨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 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오니, 별주부(甕主簿)가 의몽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뜨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을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인고? 쇠똥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술 깨어진 부등갑*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자 질음송**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노?"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 본즉 ㉢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랄 하시오?"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 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 하 감사한 말이거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을 테요? 범보다 나을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가)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 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볼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감사오면 출장임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날날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 여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었오?"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훨씬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상량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옮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別歌) -

* 부등감: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 대신 쓰는 것.

** 질음승: 화약의 심지.

*** 소진의 합중, 공명의 춘수: 토끼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엄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진 말.

42. 윗글에 나타난 토끼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라가 칭찬하는 말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
- ② 다른 짐승의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
- ③ 사냥감이 될까 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면서 살고 있다.
- ④ 처음 만난 자라에게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리고 있다.
- ⑤ 자신의 용모와 학식에 대해 자격지심(自敬之心)을 갖고 있다.

43. (가)에 나타난 별주부의 말하기 방식은?

- ① 해학적 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환심을 얻기 위해 상대방 마음에 드는 말을 쓰고 있다.
- ③ 상대방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⑤ 모호한 말을 써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8점]

- ① 동물의 외모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② 동물의 동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묘사하고 있다.
- ③ 동물의 외모로부터 그 특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동물을 인간에게 주는 효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⑤ 동물을 인간 세상의 신분 관계로 의인화하고 있다.

45. ㉠~㉣ 중, 등장 인물의 생각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윗글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채록 일시: 2001년 ○월 ○일
- 채록 장소: 경기도 ○○군 ○○면 ○○리
- 채록자: 정○○(여, 75세)
- 채록지: 김○○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토끼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짐승이 있길래 목을 집어넣고 발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그 짐승이 와서 만져 보며, "이게 뭐냐? 쇠뿔 같은데?" 하며 발로 툭 차 봤겠지. 자라는 그 짐승이 별로 해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목을 쭉 내밀고, "너는 뭐냐?" 하고 물었어. "나는 토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뭐냐?" 하고 되물었겠다. 자라는 "나는 용궁에 사는 자라인데, 이 세상에 토끼란 것이 재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용궁에서 데려다가 귀한 벼슬을 주고 재미있는 세월을 보내게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용궁에 가지 않겠니?" 하며, 이런 말 저런 말로 토끼를 꾀는 것이야. 토끼는 그 말을 들어서 용궁에 가고픈 맘이 생겼지.

- ① 수정: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장면을 전환시켰군.
- ② 종설: 설화에는 별로 없는 한문투 어구나 표현이 사용되었어.
- ③ 우성: 서술자가 토끼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군.
- ④ 진회: 설화보다 서술된 분량이 많지만 서사 진행의 속도는 느리군.
- ⑤ 현성: 토끼와 자라의 대화가 훨씬 길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예술의 현대화나 민족 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전통의 풍물놀이(농악)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나)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악(巫樂)과 같은 전통 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의 구성이나 ㉠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층적 가속(加速)의 구성 등을 이어받는 한편, ㉡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 징·뿔과리의 쇠소리와 북·장구가 내는 가죽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양(陰陽) 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사물(四物)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전한 결과이고 '음악'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다.

③ 출과 발립,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
나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무
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
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④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의 만남
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피아니스
트 및 대중 가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은 물론 국의 음악인들과
의 거듭된 협연을 통해 사물놀이는 그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놀이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재즈 그룹의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
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클래식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럽인들
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느꼈다. ⑤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나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깨우침을 얻는다."

(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굿 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잃어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두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춤·기예(技藝)와 더불어 신명 나는 소리를 펼쳐 내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지만,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 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47.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8점]

- ①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 ②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
- ③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하였다.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 ⑤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48. (나)의 '사물놀이의 옹호자'가 (다)의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의 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 ② 현대는 종합 예술의 시대다.
- ③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 ④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 ⑤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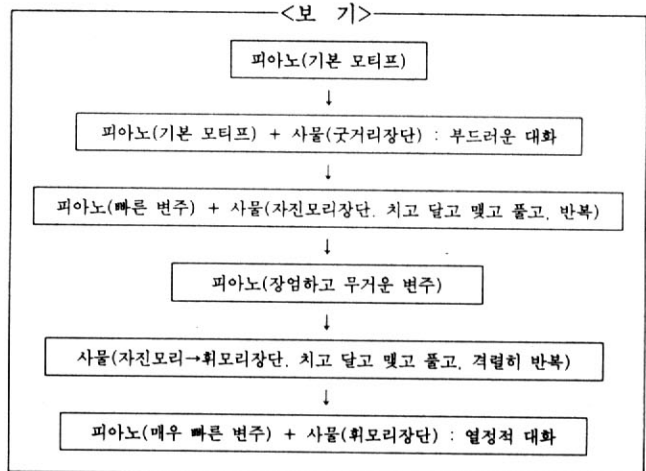
49. ㉠의 '음양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 ②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
- ③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어서 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어.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나아가야 해.
- ⑤ 사물놀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풍물놀이처럼 대중적 신명을 살려내야 해.

50.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성이 붙고 ② 타성에 물들고
③ 타성이 생기고 ④ 타성에 스며들고
⑤ 타성에 빠져 들고

51. 〈보기〉는 '사물놀이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66. 철호의 집 앞

(가) 철호가 트랙에 들어서는데 “가자!” 하는 어머니의 소리.
철호 한 대 맞은 사람 모양 우두커니 한동안 서 있더니
되돌아서 터벅터벅 걷는다.
여기에 덮이는 철호의 소리 - “어머니, 어디로 가자시는
말씀입니까?”

S# 67. 정신 병원 진료실

4. 5년 전의 어머니가 병상에 반듯이 누워 있다.
멍하니 어느 피안(彼岸)을 바라보는 눈.

어머니 가자!

그 옆에 청진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좀 막중한 철호.

철호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저러실까요. 선생님!

의사 과거에는 생활이 윤택하셨다니까 아마 그 당시로 돌아
가자시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보다 나은 세계 -
말하자면 영겁(永劫)의 나라일 테죠.

철호 선생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 글썄요. 한 삼사 년 치료를 받아 보시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S#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S# 69. 피난민 수용소 안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
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흩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의 소리 - “저절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 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
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 중 략 -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삿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

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
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
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
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
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왔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뺀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억설이야.

영호 억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
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범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 O·L(overlap): 한 화면 끝에 다음 화면의 시작을 합치면서
부드럽게 화면을 바꾸어 가는 기법.

52. 윗글을 영화로 만들고자 한다. 감독이 각 배역을 맡은 연기
자들에게 주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67의 철호는 몹시 착잡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짓도록 합
시다.
- ② S# 67의 어머니는 초점 흐린 눈에 났 나간 듯한 모습을 잘
살려 내도록 합시다.
- ③ S# 68의 철호는 지친 표정으로 건다가 어딘가를 멍하니 바
라보는 모습으로 나타내시다.
- ④ S# 69의 철호의 아내는 궁핍한 삶을 잘 참아 내는 순종적
인 인물로 그립시다.
- ⑤ S# 74의 영호는 소심하고 용의주도한 인물로 보이도록 합
시다.

53. S# 6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 화면이 연속으로 중첩되어 상황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② 철호 아내의 좌절된 꿈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 ③ 철호의 이중적 성격이 소도구를 통해 나타난다.
- ④ 담요바지와 교복이 대조적 이미지를 만든다.
- ⑤ 인물의 내적 갈등 요인을 집착하게 한다.

5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들은 잠이 들면서 의식의 작용이 거의 멈춘다.
- ② 꿈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이다.
- ③ 꿈을 통해 신체적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 ④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 ⑤ 꿈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여 보여 준다.

57. 밑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과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끝을 맺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하여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 ④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에 비유하며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58. <보기>에 나오는 '이성계의 꿈'에 대해 이 글의 관점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해설한 것은?

—<보 기>—

이성계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흘 연달아 꿈을 꾸었다. 하루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고 길을 가더니, 다음 날에는 양을 만나 뿔을 잡아 뿔이 모두 빠지고 꼬리를 잡아 꼬리도 빠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땅 위에 작대기로 길다랗게 금을 긋는 것이었다.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등에 서까래 셋을 지었으니 이는 '임금 왕(王)' 자요, 양(羊)의 두 뿔과 꼬리가 없으니 이 또한 '임금 왕(王)' 자며, 땅(土)에 작대기로 금을 그으니 이도 역시 '임금 왕(王)'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 ① 하늘이 이성계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뜻을 꿈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 ②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 이성계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다.
- ③ 이성계의 가슴속에 숨어 있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 ④ 고려 왕조의 멸망을 예견한 사람들이 별 의미 없는 꿈을 의도적으로 '왕이 될 꿈'으로 해석한 것이다.
- ⑤ 이러한 꿈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것이었으나, 이성계가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59. 문맥상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잠이 콤플렉스의 심화를 막아 주기
- ② 꿈이 정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 ③ 깨어 있는 의식이 내면 세계의 관찰을 방해하기
- ④ 투사 작용이 정신의 약점이나 결함을 가려 주기
- ⑤ 수면 상태의 나르시시즘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60. ㉠~㉡ 중, 문맥적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으시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듣기 평가 대본**

2001. 11.

(1번 대본)

※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무슨 책이 이 모양이나?

여학생 : 왜 그래? 뭐 잘못 됐니?

남학생 : 모처럼 맘먹고 외국 소설책 하나 샀는데, 번역이 엉망이지 뭐야.

여학생 : 번역이란 게 원래 어려운 거잖아. 오죽하면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는 말이 다 있겠니? 문학 작품은 번역하기가 특히 힘들대.

남학생 : 그런 차원이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여길 좀 봐. “그는 결국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졌다.” 또 여기, “그것은 무척 힘든 일로 보여졌다.” 도대체 우리 말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번역한답시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거야?

여학생 : 어머, 정말 그러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뜻이 전달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읽거나 해.

남학생 :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 뜻만 통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우리말과 글을 망쳐도 되는 거야? 가뜰이나 ‘되다’를 ‘되어지다’로, ‘보이다’를 ‘보여지다’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책까지 이래서야 되겠어? 요즘은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

여학생 :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오늘 너 참 멋있게 보여지는데. 아니, 멋있게 보이는데.

(2번 대본)

※ 이번에는 국내의 한 명승 고적에 대한 안내원의 말을 들려 드립니다.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 아름다운 계곡 잘 감상하셨죠?

여기서부터 경사진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시면 절의 입구인 일주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약 100미터 가까이 올라가면 봉황문이 있고, 그 뒤로 오른편에 놓인 국사단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해탈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문을 지나면 평지가 전개되고요, 그 전면으로 높게 구광루가 보일 겁니다. 그 구광루를 지나면 네모 반듯한 안뜰이 열리고, 거기 들어서면 두 단으로 높이 쌓은 축대 위에 번듯이 자리잡은 건물이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지금은 단층이지만 18세기 경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2층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 마당에 있는 3층 석탑은 전형적인 통일 신라 시대 석탑으로서, 1926년 보수하면서 오히려 균형미를 깨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석탑을 바라보며 왼쪽에는 궁현당이, 오른쪽에는 관음전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근래 다시 세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적광전으로 다시 가시면, 그 뒤쪽에 가로로 길게 축대가 쌓여 있고, 그 위로 담장이 죽 둘러져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국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자유롭게 관람하시다가 앞으로 한 시간 뒤에 대적광전 바로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3번 대본)

※ 이번에는 텔레비전 축구 중계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나운서 : 잠시 후면 한국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 한국의 월드컵 예선 첫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열띤 함성 소리로 경기장은 시작 전부터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자, 해설자님께서서는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해설자 : 아, 네. 첫 경기에서 강팀을 만나게 되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이겨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도리어 그쪽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게다가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플레이를 펼치다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옛말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는데요, 한 마디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 네, 첫 경기니까 부담이야 양 팀 다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객관적 전력은 우리가 다소 약세라고 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대신에 우리 선수들은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자 :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기 집 안방에 불러 놓고 경기를 하는 셈이니까, 그라운드 사정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모든 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운서 : 객관적 전력은 다소 떨어져도 이렇게 홈 구장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양 팀의 전력은 막상막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해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또 그거 아닙니까? 다만 말이죠, 홈 경기다 보니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위축되면 안 될 텐데요.

해설자 : 아, 물론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최근 큰 경기에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팀은 전통적으로 투지와 근성, 정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5분 동안 잘 지키고, 또 만일 선제 골만 넣게 된다면 경기의 양상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남미 선수들은 다혈질이라서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같이 승리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죠.

(4번 대본)

※ 이번에는 과학 교양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은 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시다.

물은 참 특이한 물질이에요.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물질은 열게 되면 그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물은 열면 어떻게 되죠? 네, 부피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더 커진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 같은 부피라면 물보다 얼음이 가볍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나고요? 만일 물보다 얼음이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철 호수에 물이 얼면, 얼음은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을 것이고, 그 다음엔 얼음 위의 물이 얼어서 또 가라앉게 되고, 결국에는 호수 전체가 다 얼어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호수 속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생물들은 겨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한편 물은 또 열용량이 매우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빈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 금세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그 냄비에 물을 채우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불 위에 올려놓으면 물의 온도가 고작 몇 도밖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처럼 물은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해도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어떻다는 얘기냐고요? 만일 메마른 땅에 태양이 내리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마른 땅은 마치 물이 없는 냄비처럼, 낮에는 빨리 뜨거워지고, 밤에는 또 빨리 식어버리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지구는 지표면의 4분의 3을 덮는 바다가 있어, 열용량이 큰 이 바다가 열을 보관하고 운반해 줌으로써, 지구 전체의 기후를 살기 좋게 조절해 준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5-6번 대본)

※ 이번에는 문화부 기자와 영화 감독의 라디오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 : 그럼 이번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을 직접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감독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선 이번 영화가 처음이 아닐까 하구요. 영화 속에서 캐릭터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 그래서 스토리나 그들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소리,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감독 :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판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인데도 항상 푸대접을 받아왔지요. 텔레비전에서 판소리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우리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홀대해 온 이 판소리를 영화로 들려주고 보여주자.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기자 : 하지만 소리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들인 고뇌와 정성이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요. 영화란 결국 화면을 보는 건데 그러면 소리를 놓치게 되고, 소리만 강조하면 또 관객들이 외면하게 될 테니 말이죠.

감독 :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이 제가 아흔 세 번째 연출한 작품이지만, 이처럼 고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건, 과연 소리를 어떤 그림에 붙여놔야 판소리가 갖는 맛과 감동의 세계가 그려질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점이 내가 처음 이 영화의 연출을 결심하면서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 못하면 지는 거고, 이것을 해낸다면, 흥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으로서 비로소 나 자신 뭔가 해낸 감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기자 : 그동안 좋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감독님께서서는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으니 결국 성공하신 거네요.(웃음) 감독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영화에서 롱 쇼트 기법을 많이 구사하신 것도, 컷을 자주 나누면 소리의 미세한 흐름을 죽이게 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미장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한 평면에 180도로 마주보고 앉은 채 소리를 하는 장면, 즉 화면 양쪽 끝에 인물을 배치해 놓고 카메라는 정면을 바라보는 썸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프레임 아닌가요?

감독 :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카메라 구도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앵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두 사람 중 어느 쪽에도 비중을 두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건 인물을 보지 말고 소리를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배우 얼굴이나 스토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소리가 가장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둔 것이죠.

기자 : 소리만이 아니라 이번 영화를 보며 관객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고 새삼 감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헐리웃 영화의 화려하고 현란한 장면에만 익숙해 있다가 영상 속에 새롭게 재현된 우리나라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되니 저절로 감동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문제는 판소리든 자연이든, 우리 고유의 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닐까 합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